기술 넘어 산업 혁신으로… AI 전환 이끄는 주역 한자리에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과기정통부 주최, 본지 주관 개최
이장규 대표 "산업계 이정표이자 국가 경쟁력 높이는 자산 될 것"
AI 활용 우수사례 등 12개社 수상



25일 메타빌드 AI 스페이스센터에서 열린 '제 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에서 시상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우수 SW·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혁신 성과를 발굴해 격려하는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이 열렸다. 올해는 실제 산업 현장의 도입과 활용 성과까지 조명하기 위해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을 신설했다. AI 확산으로 달라지는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메트로경제신문〉과 한국SW·AX총연합회·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메타빌드 AI 스페이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와 이우용 한국SW·AX총연합회장,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비롯해 SW·AI 업계 관계자와 수상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글로벌 ACX 초월대상'은 인공지능 전환(AX)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와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뿐 아니라 AI를 실제 업무와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도 함께 조명한다.

이장규 메트로경제신문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한계를 넘어 이뤄낸 여러분의 성과는 우리 산업계가 나아갈 확실한 이정표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의 건강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이우용 SW·AX총연합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우용 회장은 "초월대상은 기술이 가치를 창출시키는 역할, 산업 경제 넘어서 국내 넘어 세계로 도약하자는 의미"라며 "수상하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더 많은 기업이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AI 강국 도약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확산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가 산정과 공공부문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상에 앞서 진행한 강연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주목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태영 실장은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라 기존 시스템통합(SI)과 개발 시장은 축소될 수 있으며, AI 에이전트를 연결해 현장에서 운영하는 FDE 시장은 새로운 성장 영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실장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사용자 상호작용 중심 소프트웨어는 대체·축소되는 반면, DBMS·클라우드·보안 등 데이터와 인프라 영역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AI 도입·활용으로 업무 혁신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발굴하는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제품·서비스 부문과 인재 부문에서 총 3가지로 시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 추가되면서 3개 부처 장관상 총 4점이 수여됐다.

수상 기업은 제품·서비스 부문 9개 기업과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3개 기업 등 총 12개 기업이다. 인재 부문에서도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품·서비스 부문의 부처 장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고려아카데미컨설팅 'AIUP 학습플랫폼'·유신테크 'AI 도시통합에너지절감 및 환경제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상 엔시드 'NS-FMM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메타빌드 'LLaMON AX' 등 4개 기업이 수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가온플랫폼 'AI기반 지능형운전상태 및 고장예측진단시스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더존비즈온 'ONE A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에어팩'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토스랩 '잔디' ▲전자신문 사장상 마드라스체크 '플로우' 등이 있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씨앤테크 '재정지원 설비 사후관리 관제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아라소프트 '아라오피스 기반 지식·제조데이터 융합 보고·자동화 AX 도입' ▲메트로경제신문사장상 한국자산관리공사 'AI기반 맞춤형 위험성평가 솔루션'이 선정됐다. 인재 부문은 고중훈 아이씨티웨이 이사가 한국SW·AX총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2026 韓 정부혁신박람회

KT, 공공기관 업무 혁신 AI 서비스 소개

5G 정부망 활용, 사무실 외 업무
기업형 에이전틱 AI 플랫폼 선봬

KT가 공공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중에 선보인다.

KT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AX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공의 일과 현장을 잇는 KT AX'를 주제로 ▲연결(Connect) ▲분석(Think) ▲실행(Act) 등 3개 공간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안전한 업무망 연결부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AI, AI 에이전트를 통한 업무 처리까지 공공 AX 환경이 적용된 업무환경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다.

'Connect' 공간에서는 5G 정부망을 활용해 사무실 밖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선보인다. 노트북과 5G 에그를 이용해 사용자 인증을 거쳐 정부 업무망에 접속하고, 출장이나 현장근무 중에도 내부 업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Think' 공간에서는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서버와 KT AI 모델, API 플랫폼을 통합한 온프레미스형 AI 패키지 'NPU LLM 스테이션'을 소개한다.

전용망이나 폐쇄망에 구축할 수 있어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문서와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ct' 공간에서는 질의응답은 물론 데이터와 업무시스템을 연결해 실제 업무 수행까지 지원하는 기업형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 온'을 선보인다. 사용자의 업무 요청을 파악해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구성하고, 기관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조민선 기자

삼성SDS, 공공 AX 사례로 경쟁력 입증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 존 운영

삼성SDS가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AI 풀스택 역량과 주요 적용 사례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박람회에서 ▲AI 인프라 ▲AI 플랫폼 ▲AI 솔루션 등 3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클라우드부터 업무 플랫폼,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AI 서비스까지 공공 AX를 위한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AI 인프라' 존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망분리 환경을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력을 소개했다. 특히 삼성SDS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인 'SCP 소버린'을 통해 보안 등급 상 업무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안 환경과 AI 인프라 역량을 제시했다.

'AI 플랫폼' 존에서는 공공 업무 환경에서도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과 주요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AI 솔루션' 존에서는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부처의 업무 생산성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현재 브리티웍스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총 18개 중앙부처, 22만 명이 사용 중이다. /조민선 기자


삼성SDS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공공 분야 AX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月 1980원으로 온가족 건강관리 책임진다"

KT엠모바일, 부가서비스 선봬
의사 상담, 간병인 등 서비스 다양

KT엠모바일은 온가족이 건강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요금제 변경이나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부가서비스다. 가입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가격 부담을 낮췄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서비스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주요 질병 진단 이후 치료와 회복 과정을 지원한다.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4시간 365일 의료진 건강상담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병원 및 전문 의료진 안내, 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 대행, 건강검진 맞춤 설계·할인예약·결과상담, 비급여 시술 항목 할인, 요양시설 안내 및 입소상담 등 다양하다.

질병 진단 이후에는 치료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뇌혈관질환·치매 등 노인성질환부터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암·심근경색 등 대상질병 진단 시 간호사 진료동행, 입원 시 간병인, 가사도우미, 방문재활운동, 차량 에스코트 등을 가입 기간 동안 가족 합산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1980원이다. KT엠모바일 다이렉트몰과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익시오'에 가족보호 알리미 기능 추가

LG U+, 보이스피싱 감지되면
최대 10명 가족 번호로 문자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xi-O)'의 생활 안전 기능을 고도화한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사전에 등록한 가족에게 즉시 알려주는 '가족 보호 알리미 기능'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족 보호 알리미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가족의 신속한 확인과 대응을 돕는 기능이다.

앞으로는 가족이 위험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화 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위험을 경고했다.

익시오 이용자는 위험 상황을 전달받을 가족을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가 감지되거나 이용자가 112·119 등 긴급전화에 전화를 걸면 등록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된다. 가족은 이용 중인 통신사나 익시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출시에 맞춰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안내 기능도 개선했다.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기관 사칭, 금융 관련 사기, 카드 도용 사칭, 투자 리딩 사기, 대리구매 사기, 납치 협박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유형과 구체적인 이유를 통화 화면에 보여준다.

/조민선 기자